



大學圖書館大會記念

全國大學圖書館

大會會議錄

日 時：1965年 4月 22日~24日
場 所：慶南陝川郡海印寺明月堂

一. 開會式

司會：尹惠昇(大邱大學圖書館) 지금까지 1965年度 第四回 全國大學圖書館大會를 開會하셨습니다.

1. 國民儀禮
2. 開會辭：羅炳旭(慶北地區協議會長)
3. 記念講演：金桂淑(서울大學校圖書館長)(內容別紙 掲載参照)

二. 議長選出

司會(尹惠昇)=會順에 따라 議長選出을 하셨습니다.
高聖秀(慶北大學圖書館長)=慶北地區協議會長이신 羅炳旭先生을 議長으로 推戴할것을 動議합니다.

—滿場一致로 推戴할것에 贊成한다—

議長(羅炳旭)=議事を 맡아본 經驗도 없고 모든 點이 不足합니다만 여러분의 協助를 부탁드리면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三. 議題發表(別紙掲載参照)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相互貸出問題

高雄濟(慶熙大學校圖書館)

國家機能으로서의 圖書館

李鍾文(韓國圖書館協會事務局長)
藏書의 自然減少는 어떻게 處理되어야 하나

高聖秀(慶北大學校圖書館)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司書職과 學的背景問題

千惠鳳(東國大學校圖書館)

大學圖書館運營의 合理化와 司書職의 訓練問題

南承冕(成均館大學校圖書館)

四. 全體會議

議長(羅炳旭)=日氣도 不順한데 午前에는 大端히 手筈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現職에 勤務하시면서 平素에 느끼던 隘路事項이나 어려운 點들에 關하여 忌憚없는 意見を 진술하고 討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聖秀(慶北大學圖書館)=圖書廢棄法規를 時急히 制定하여 줄것을 建議합니다. 每年 圖書館大會에 마다 建議하는 問題이지만 文教部에서 何等の 反應이 없으므로 具體的인 事項을 제시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962年 11月 14日 調達廳 訓令第61號 調達廳 圖書管理規定과 1964年 3月 10日 逕信部令 第249號 逕信廳 物品管理規則에 圖書管理事項이 있는것을 考慮하여 文教部에서도 閣令이나 部令으로 圖書廢棄法規를 制定하여 줄것을 建議합니다.

李鍾文(事務局長)=財政法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問題입니다만 現行法上 藏書는 備品인 故로 年間 몇 %의 自然 消耗를 認定한다는 것은 不可能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 問題를 반드시 解決하여야 하므로 어떠한 不文律을 만드는데 그칠이 좋을가합니다.

李光宇(全南大學圖書館)=現行法上 5,000원 以下の 物品은 所屬機關長이 不用의 決定을 하여 廢棄할수 있습니다.

李鍾文(事務局長)=監査院에서도 도저히 廢棄에 對하여는 認定하지 않고 다만 陰性的으로만 認定한 例는 있습니다.

議長(羅炳旭)=法案으로서는 現在 困難한 點이 많지만 우리들의 隘路를 打開하기 爲하여서는 建議할수 있지 않을가 生覺합니다.

高聖秀(慶北大圖書館)=建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法案으로서 成案하여 提出할 것을 提議합니다.

李光宇(全南大學圖書館)=特定大學에서 이를 研究하여 法案을 만드도록 選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桂淑(서울大學校圖書館長)=慶北大學校에서 研究했으니 이 問題를 圖書館協會 事務局과 合同으로 法制定에 必要한 草案을 作成함이 좋을듯 합니다.

——同贊成하다——

議長(羅炳旭)=여러분의 뜻에 따라 慶北大學校에서 努力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高聖秀(慶北大學校圖書館長)=千惠鳳先生任과 事務局長의 말씀을 듣건데 國內圖書館學科의 curriculum의 再考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生覺합니다.

千惠鳳(東國大學校圖書館長)=먼저 言及한 것은 韓國의 大學圖書館學科學生의 實例를 두고 다룬것이 아니라 一般圖書館學全般에 걸친 問題를 다룬 것입니다.

李鍾文(事務局長)=參考司書만 하더라도 専門分野의 學的背景을 가지고 圖書館學을 履修해야만 充分한 機能을 發揮할 수 있을텐데 現實은 그렇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언젠가는 解決해야 할 문제인줄로 生覺합니다.

李龍洙(仁荷工大圖書館長)=저의 學校에서는 1學年에 對해서 圖書館學講義를 1學期間 實施하는데 學點은 3學點을 認定하고 있습니다. 모든 大學에서 每週 2~3時間씩 圖書館學講義 時間을 挿入하여 圖書館利用에 對한 教育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崔星洛(서울教育大學圖書館長)=우리 學校에서는 教養課目으로 圖書館學講義를 하고있는데, 學校實情에 따라 困難하면 學點은 없더라도 반드시 Orientation Course로서 講座를 設置하여야 될줄 압니다.

韓晶根(德成女大圖書館長)=教育大學같은데서는 圖書館學講義를 할 수 있으나 現在로서는 人材不足으로 講

義할수 있을런지 疑問視될뿐 아니라 學校當局에서도 쉽게 認定하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問題보다도 大學院에 圖書館學科를 設置하여 充分한 研究를 가진 實力者의 背出이 先決問題라 生覺합니다.

金愛羅(西江大學圖書館長)=1960年 西江大學에서는 新入生에 對한 Orientation을 實施하여 1~2時間의 圖書館學 特講을 했습니다. 1964年度부터는 英文學科 教授로부터 英文學時間中에서 몇時間의 割愛를얻어 圖書館學에 對한 講義를 實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圖書館 特講制度가 가장 알맞은 方法입니다.

議長(羅炳旭)=먼저 文教部의 curriculum도 參考를 해야 합니다. 選擇課目으로는 教育大學, 師範大學에서 curriculum設置가 可能하다고 生覺합니다. 實際로 우리 慶北大學校에서는 師範大學과 附屬研究院에서 教養課目으로 圖書館學講義를 하여 왔습니다.

金鍾喆(中央大學圖書館長)=設置問題는 學校事情이 同一하지 않으므로 各者가 勤務地로 돌아가서 그 氣運을 高潮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議長(羅炳旭)=이 問題는 앞으로 各大學別로 努力하고 研究하여 다음 會議에 再論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同贊成하다——

金桂淑(서울大學校圖書館長)=大學圖書館司書職의 質的向上을 爲하여 先進諸國에 가서 再訓練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文教部 當局에 建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議長(羅炳旭)=司書職 海外派遣問題는 지난 17, 18日 國立大學圖書館長會議에 論議되었던 것입니다 마는 새로운 圖書館學의 知識을 習得하고 보다 運營의 妙를 期함과 同時에 士氣의 昂揚을 爲해서도 切實히 必要한 問題입니다.

崔達鉉(慶北大學校圖書館長)=會議에 直接參席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問題가 제기되었을때 여러가지 資料를 蒐集하고 檢討研究하기 爲해서 慶北大學校에서 課題로 맡았으나 이의 資料蒐集과 調査研究에는 相當한 時間의 餘有가 있어야 되므로 다음 會議에 研究報告하도록 決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大會에서는 文教部에 다 司書職도 海外派遣의 여러 Case에 參加시켜 주도록 建議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金鍾喆(中央大學圖書館長)=文教部보다 外國 各種機關을 通하는것이 留學의 機會가 많기 때문에 莫然히 文教部에 建議하기 보다 이에 對한 資料를 調査蒐集하여 具體적으로 제시함이 좋겠습니다.

金德山(延世大圖書館長)=午前中에 發表된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相互貸出 問題는 優先 Union Catalog의 作成이 先決되어야 할 問題입니다. 大會때마다 論議되기는 합니다마는 結局 經濟問題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文教部나 또는 다른 機關에 이 事業을 爲한 資金의 捻出을 爲해서 建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桂淑(서울大學圖書館長)=이 問題에 對해서는 亞細亞財團에도 要請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各大學마다의 綜合目錄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大學別로 Catalog를 作成한 후에 問題를 제기해야 될 줄 압니다.

文炳旭(首都女師大圖書館)=지금까지의 藏書에 對해서는 一時에 綜合目錄을 만드는 것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들어오는 冊에 對해서는 card를 簡장식만 더 만들어서 우리가 지정하는 學校에 備置하는 方向이 어떻습니까?

—採擇되지 않다—

議長(羅炳旭)=約束된 時間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른 討議하실 案件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崔星洛(서울教育大學圖書館)=圖書館法施行令에 있어서 다른 여러가지 未備한 點이 많겠지만 特別 國公立 圖書館의 司書職에 對한 問題에 있어서는 現在의 矛盾點을 하나도 解決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訓練된 者는 採用할 수가 없고 高等學校 卒業程度의 實力에다 圖書館學概論 한권 程度 學어본 사람이면 合格할 수 있는 現公務員 任用制度의 矛盾에서 脫皮하는 方向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李鍾文(事務局長)=圖書館法 施行令상의 여러가지 未備한 點은 이번 全國館種別 大會가 끝나는대로 綜合的으로 要路에 建議할 豫定입니다.

金桂淑(서울大學校圖書館長)=司書의 採用問題에 對한 現行法상의 矛盾點은 우리圖書館에도 바로 當面한 問題의 하나입니다. 合理的으로 이를 解決하기 위한 方案으로는 總務處에서 各大學의 總長에게 司書職採用的 權限을 委任하여 獨自的으로 有能한 司書を 採用할수 있게끔 各大學別로 總長을 通해서 建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崔星洛(서울教育大學圖書館)=金館長任이 말씀하신 方法도 直接的인 方法으로서 當然히 採擇해야 할 줄 믿으나 同時에 우리 全體의 이름으로 關係要路에 建議를하는 側面的인 方法도 아울러 갖는 것이 더욱 效果的인 方法인줄 믿습니다.

崔達鉉(慶北大學校圖書館)=事務局長께서 말씀 한바와 같이 館種別 大會가 끝나는 대로 協會에서 建議事項을 綜合할때 大學圖書館大會의 建議事項으로 이 問題를 採擇하도록 決議를하고 討論을 終決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李光宇(全南大學圖書館)=현재 서울大學校를 제외한 各大學圖書館의 司書長職은 모두 4級甲類인줄 알고 있는데 圖書館이 大學의 心臟部라고 일컫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處事입니다. 他課의 課長은 모두 事務官 級이기 때문에 이같은 不均衡의 關係에서는 重要한 圖書館機能을 도저히 圓滿하게 遂行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強力하게 建議를 하고 推進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文(事務局長)=建議文을 作成하는데 充分히 反映하고 이의 觀철에 積極努力하겠습니다.

尹惠昇(大邱大學圖書館)=閉會에 앞서 처음으로 地方에서 大會를 主管한 慶北地區協議會員의 한사람으로 所感이랄가 意見を 말씀드려 앞으로 參考가 되면 感謝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번 大會를 慶北地區에서 하도록 協會에서 決定을 하였을때 事實上 망서렸습니다마는 事前에 아무런 協議도 없었고 또 準備도 없었기 때문에 當然하다고 生覺합니다. 그리고 議題의 選定및 發表者의 決定問題도 大會때마다 다음 大會의 場所를 決定하고 會議도 終日토록 全體會議을 지루하게 계속할 것이 아니라 議題와 發表者를 미리 決定하여 充分한 研究를 시키고 大會에는 分科會別로 眞摯한 討議를 한다음 建議事項을 採擇 全體會議에서 承認하는 方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李鍾文(事務局長)=慶北地區協議會에 對해서는 大端히 未安하게 生覺합니다. 事實 地方으로서는 여러가지 面으로 보아 慶北地區에서 主管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生覺하여 決定을 한것입니다. 다른 圖書館大會에서는 다음 大會의 場所를 미리 決定하여 왔습니다만 議題 및 發表者까지 미리 決定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生覺됩니다. 場所만 決定된다면 그 地區와 協議해서 決定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大會의 場所를 決定해 주십시오.

議長(羅炳旭)=來年度 大會는 全南大學校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李光宇(全南大學圖書館)=이 자리에서 決定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全南大學校로 決定하는데 一同贊成하다—

議長(羅炳旭)=장시간동안 날찌도 不順하고 場所도 딱딱한데 우리들이 當面한 共通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眞摯한 討論을 해주셔서 感謝합니다.